

코로나19 전·후

우리는 얼마나 일자리를 잃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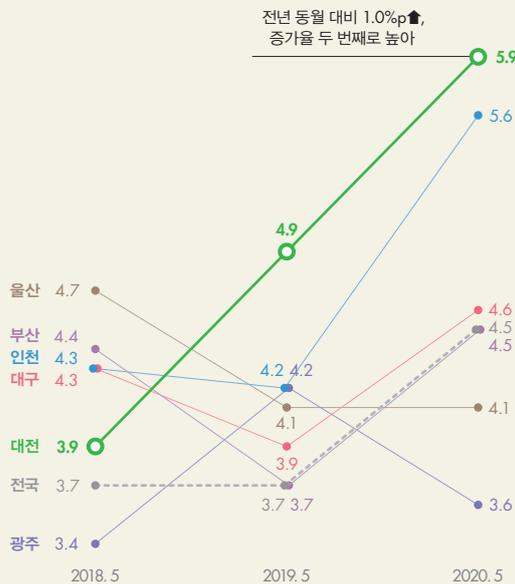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월 말,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악성 호흡기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멈추게 했고, 개인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다. 고용환경과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멈춰진 일상은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고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해지, 소득 감소 등 ‘생계 불안’으로 이어졌다.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은 1차적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 감소 위험이 크다.¹⁾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이번 호는 코로나19 전·후 대전의 성별, 연령별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변화에 주목해보자.

대전 여성 실업률 2020년 5월 5.9%,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5월의 여성 실업률은 3.7%,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의 5월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 6대 광역시 중 인천은 2020년 5월 5.6%(여성 40천명, 남성 38천명)로 2019년 5월과 비교해 1.4%p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크다. 대전은 2020년 5월(여성 21천명, 남성 24천명) 여성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증가율(+1.0%p)이 두 번째로 높고, 최근 3년간 동월 대비 실업률이 상승세만 보인다. 반면 광주는 2018년 5월 3.4%, 2019년 5월 4.2%, 2020년 5월 3.6%(여성 13천명, 남성 22천명)로 동월 대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인 2020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나타낸 곳이다.

6대 광역시 여성 실업률

단위 : %



6대 광역시 실업자 수(2020.5)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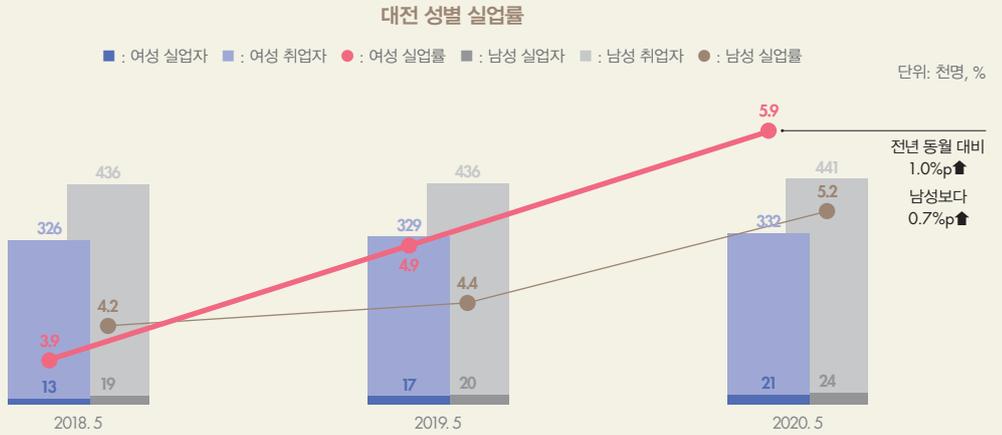


- 취업자: ①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기준에 맞게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표본 규모는 1,727개 조사구, 약 35,000가구(가구추출률 0.3%)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① 이병희(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 한국노동연구원.
② 정홍준(2020), '코로나19, 사회적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5월 대전 여성 실업률 남성보다 0.7%p 높아

대전의 여성과 남성의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실업률은 2019년·2020년 5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성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실업률은 2018년 5월 여성 3.9%, 남성 4.2%로 남성이 여성보다(+0.3%p) 다소 높다. 그러나 2019년 5월 여성 실업률 4.9%로 2018년 5월과 비교해 1.0%p 상승했으며, 남성 실업률(2019년 5월 4.4%)보다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월 대전 여성의 실업률은 5.9%(전년 동월 대비 +1.0%p), 남성 실업률은 5.2%(전년 동월 대비 +0.8%p)로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0.7%p 높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대전 실업급여 여성 수급자 비율, 2020년 5월 6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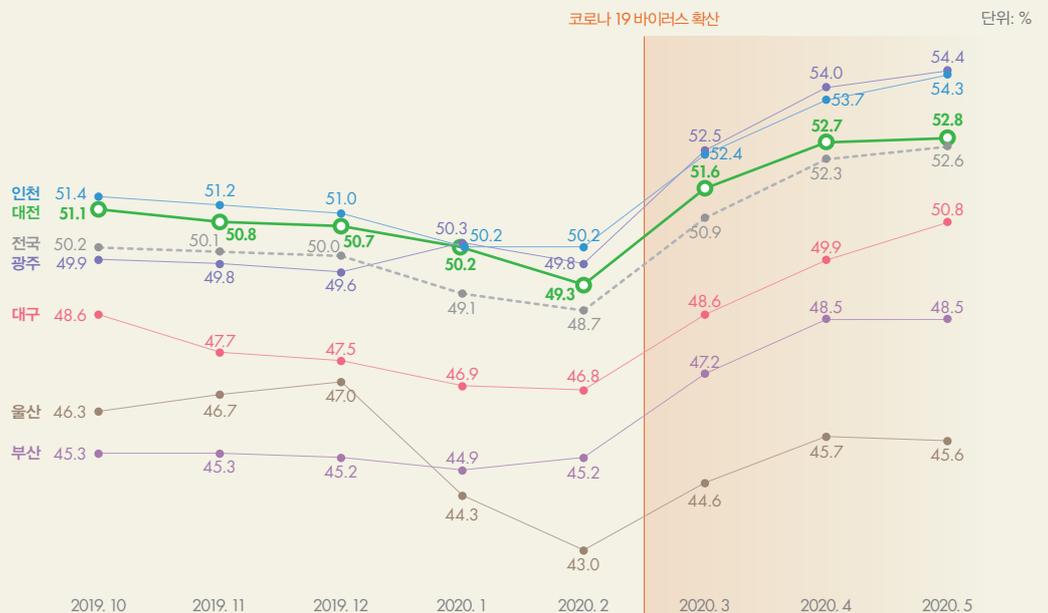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10월 이후 지급기준이 변경²⁾되었기 때문에 '19년 10월부터 '20년 5월까지 대전의 성별·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 어떠한 증감 곡선을 그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대 광역시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전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1%에서 시작해 감소하다 2020년 2월(49.3%) 절반 이하의 비율로 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3월(51.6%, 2월 대비 +2.3%p)부터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 5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52.8%로 6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다. 6대 광역시 모두 2020년 2월까지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 2020년 3월 이후 증가하는 모양을 띠고 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해당 월에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수급자 수로 동일인이 해당 월에 여러 번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한 명으로 계산됨
- 해당 월에 중복을 제거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순수 수급자 수로 여러 월의 수급자 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됨
-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여성 수급자+남성 수급자) 중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https://eis.work.go.kr>)

2) 19.10.01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 동월 대비 비교는 부적절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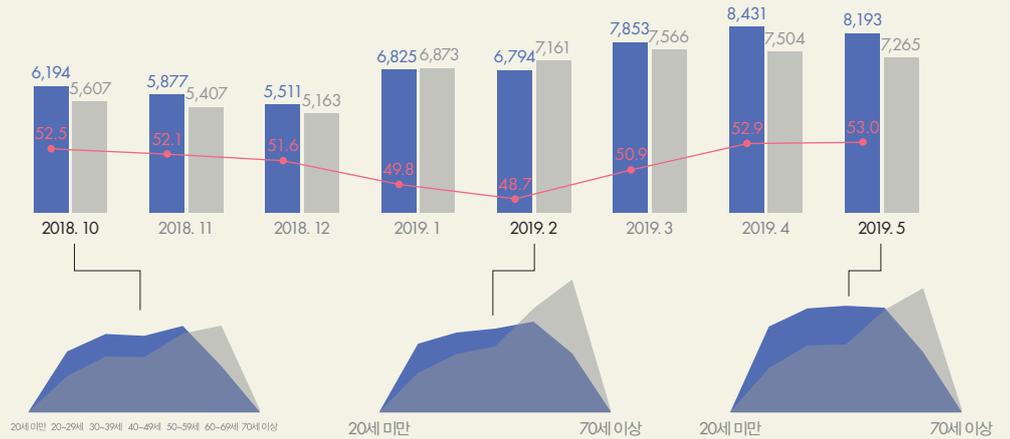
2020년 5월, 20대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수 대폭 증가해

성별·연령대별 변화를 보기 위해 2019년 10월~2020년 5월과 실업급여 기준 변경 전인 2018년 10월~2019년 5월을 함께 비교했다. 남성은 '18년 10월, '19년 2월, 5월, '19년 10월, '20년 2월, 5월 모두 20대부터 늘어나다 50대에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70세 이상에서 크게 줄어드는 유사한 양상을 띤다. 여성은 '18년 10월, '19년 2월, 5월, 10월에는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완만한 산 모양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20년 2월, 20대 여성 수급자가 30대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5월에는 20대 여성 수급자(2,235명)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형태 변화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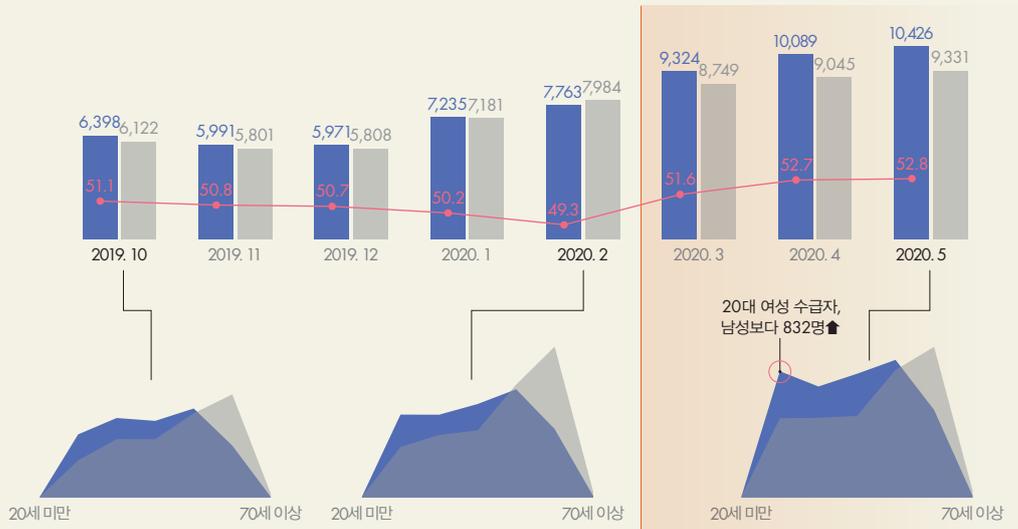
대전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 : 여성 ● : 여성 수급자 비율 ■ : 남성

단위: 명,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연령: 실업급여지급자 해당 월 말일 기준 만 나이임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분류불능' 명수는 제외함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 # 젠더 콜로키움 # 에코페미니즘 # 여성환경연대

2020년 제3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8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젠더 콜로키움은 “자연에 대한 폭력과 사회적 소수를 향한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팬데믹과 기후위기시대의 젠더: 에코페미니즘 관점
발제자 김양희_여성환경연대공동대표
일시 2020년 8월 18일(화)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해 총 인원 20명 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